제28기 경륜선수 후보생 모집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제28기 경륜선수 후보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되면 지원 가능하다. 시력(교정시력 두 눈 0.8 이상, 한눈 각각 0.5 이상, 백색 흑색 적색 청색 황색의 식별 가능)과 청력, 혈압이 정상이어야 한다. 서류전형과 1차 시험(필기, 실기, 인성, 체력 측정 등), 2차 시험(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생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경륜훈련원(경북 영주시 소재)에서 경륜선수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합격생 중 국제대회 사이클 종목 입상자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자녀는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5일 경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경륜은 현재 538명이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경륜선수 연평균 상금은 7800만 원 수준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이홍복 경주사업총괄본부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광수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회장(왼쪽부터)이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광명시 소외계층에 쌀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추석 연휴인 8일 '좀도리' 운동으로 모은 쌀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좀도리'는 쌀을 퍼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움큼씩 덜어 모아두는 단지로 쌀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간 경주사업총괄본부 임직원들이 500ml 물병에 모아온 좀도리 쌀 120개와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 구매한 햅쌀 10kg 100포를 전달했다. 기증한 햅쌀은 경주사업총괄본부 직원들이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조성된 사랑나눔기금으로 구매했다. 모여진 쌀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통해 광명시 관내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 등에게 배부했다.

하루에 100배 이상 배당이 15회? 경륜 베팅 전략을 바꿔야할 때

1·2위 축으로 '3위권 복병'을 찾아라

8월 28일 삼쌍승 4028.6배 고배당
복병급 선수들 주로 마지막 날 두각
"금·토요일에 복병급 선수 탐색 중요"



광명스피돔에서 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 장기 휴장과 개인 사정으로 남보다 뒤늦게 복귀한 인기순위 하위권과 경륜장 입소 후 이틀은 부진하다 마지막 날 반짝하는 이른바 복병급 선수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복병의 사전적 의미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쟁 상대'라는 뜻으로 경륜에서의 복병은 큰 인기를 모으지 못하는 선수들을 가리킨다. 최근 이런 복병급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벨로드롬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통상 경륜은 인기순위 1위를 축으로 하고 2위인 입상후보 선수를 바탕으로 베팅 전략을 짜는데, 요즘 인기순위 하위권인 복병급 선수들이 3위권에 올라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상반기 중간까지만 해도 복귀 선수들은 경주 감각과 훈련량 부족으로 기존 선수들을 따라가기 버거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주 복귀 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제 기량을 되찾아 승부욕과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귀가 늦은 선수들이 그동안 불규칙한 시즌 운영으로 인해 생계와 경주를 병행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졌으나, 공백기 없이 경주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여기에 팀 훈련과 함께 체계적인 개인훈련이 맞물리면서 기량 회복이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자가 다수 편성된 경주에서 강자들의 맞대결로 인해 이들 복병급 선수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복병급 선수들은 대개 한 회차 경주에서 초반 이틀은 고전을 하다가 마지막 날 경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8월 28일 일요일 부산 5경주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허남열(24기 우수)이 2착을 하며 삼복승 57.0배가 나왔다.

같은 날 광명1경주에서는 정현섭(10기 선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착을 하며 단승 51.7배, 쌍승 868.8배, 삼쌍승 4028.6배라는 고배당을 형성했다. 이어 열린 2경주에서 지종오(9기 선발)는 올해 첫 3착으로 입상하면서 삼복승 14.7배를 형성했고, 4경주에서 이형재(9기 선발)가 2번째 3착으로 121.2배를 기록했다. 7경주 역시 박종현(6기 우수)의 1착으로 쌍승 23.4배, 14경주는 왕지현(24기 우수)이 1착하며 쌍승 26.7배를 기록했다. 이날 경주에서 100배가 넘는 배당은 총 13회나 발생해 1, 2일차에 비해 73%나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다.

4일 일요일 창원1경주에서는 김동관(13기 특선)이 특선급 승급 후 첫 입상으로 삼복승 20.6배가 나왔다. 광명4경주에서는 이재봉(12기 선발)이 1착하며 단승 19.3배, 쌍승 87.5배, 삼쌍승 445.6배를 기록했다. 또 8경주에서 박성근(13기 우수)이 3착하며 삼복승 14.6배, 13경주에서는 김태범(25기 특선)이 1착하며 단승 21.5배, 쌍승 80.5배 삼쌍승 231.1배가 형성됐다. 이날도 100배 넘는 배당이 총 15회로 1,2일차에 비해 30%나 많았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금, 토요일 탐색을 통해 마지막 날 인기가 낮은 선수에게 관심을 주는 게 좋다"며 "폭넓고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기순위 1, 2위를 묶고 나머지 3위로 복병급 선수를 찾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관록의 김종민이냐, 세대교체 주역 조성인이냐…대상경정 격돌

21일 12명 예선, 22일 6명이 결선
김종민, 올해 큰 대회 우승 굶주려
조성인, 4월 대상 제패 기세 이어야



김종민 조성인

제38회차인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미사리경정장에서 스포츠경향배 대상경정이 열린다.

이번 대상경정 특선경주 진출자는 1회차부터 36화차까지 평균득점 상위자 12명이다. 우승상금 1000만원이고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수여한다. 현재 출전이 유력한 선수로는 김종민(2기), 조성인(12기), 김응선(11기), 김효년(2기), 김현철(2기), 김완석(10기), 어선규(4기), 이용세(2기), 이동준(8기), 안지민(6기), 손지영(6기), 류석현(12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상경정은 21일 1일차 수요경주에서 예선을 치러 6명이 22일 결선을 벌인다.

이번 대상경정은 간판스타 김종민과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조성인의 접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응선, 김효년, 김현철, 김완석, 어선규 등이 둘을 받치는 모양새다.

김종민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스포츠경향배 우승자이다. 지난해 경정선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그랑프리 우승을 포함해 쿠리하라배까지 2번의 대상경주를 싹쓸이 했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큰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 비록 최근 흐름이 다소 저조하다고 해도 현재 경정 선수 중 가장 높은 60%대의 승률, 대상경정 최다 우승, 강점인 강력한 스타트와 선회력, 강한 승부욕이 돋보이는 선수여서 기대를 모은다.

조성인에게도 이번 대상경정은 놓칠 수 없는 대회다. 지난해 큰 경기에서 김종민에게 여러 차례 밀리다가 올해는 4월 스포츠월드배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왕중왕전에서 하위권으로 처져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많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스포츠경향배(5회 우승)와 인연이 깊은 심상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발위반(플라잉)으로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준다. 하지만 8월 왕중왕전에서 입상한 김완석(우승), 김현철(2위), 김응선(3위)과 스포츠월드배 2위를 차지한 안지민 그리고 올 시즌 40%대 승률의 김효년, 삼연대율(76.6%) 전체 2위를 기록 중인 어선규 등도 관심을 둘만 하다.

이서범 경정코리아 분석위원은 "큰 경기, 가장 높은 자리에 목말라 있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열띤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틀을 향한 승부의지가 강하게 발동할 것으로 보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연예뉴스 HO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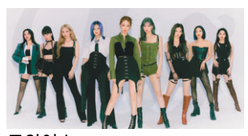
이학주·로꼬, 각각 비연예인과 결혼



이학주

배우 이학주(33)와 래퍼 로꼬(33)가 각각 올 가을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13일 이학주의 소속사 SM C&C는 "이학주가 11월 중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양가 친인척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꼬도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어린시절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갑내기 친구와 올 가을 결혼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곡 가사 속 '소이라떼'가 여자친구라고 고백했다. 이학주는 지난 해 공개된 넷플릭스 화제작 '마이네임'에서 마약조직 2인자 역으로 주목받았다. Mnet '쇼미더머니' 최초 우승자인 로꼬는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았다.

트와이스 '비트윈 1&2' 빌보드200 톱10



트와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열한 번째 미니음반 '비트윈 원앤투'(BETWEEN 1&2)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으로 '톱 10' 진입에 성공했다. 13일 빌보드는 차트 분석 기사를 통해 "트와이스의 이번 신보가 전주 3위에서 6계단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라며 "전주보다 73% 하락한 2만 8천장 상당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비트윈 원앤투'는 트와이스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전원 재계약 한뒤 내놓는 음반으로 주목 받았다. 타이틀곡 '톡 댓 톡'(Talk that Talk)은 박진감 있고 시원하게 뻗는 후렴 멜로디가 중독적인 곡이다.

정채연, '금수저' 촬영 중 부상으로 수술



정채연

걸그룹 다이아 멤버이자 배우 정채연이 드라마 촬영 중 부상을 당해 13일 수술을 받았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에 따르면 정채연은 10일 MBC 새 금토드라마 '금수저' 촬영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와 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이날 오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정채연은 공식 팬카페에 "걱정하지 마라. 조금 떨리긴 하지만 괜찮다. 뇌진탕도 이제 괜찮다. 머리는 멀쩡하다"는 글을 올려 팬들을 안심시켰다. 정채연 주연한 '금수저'는 23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앞서 24일에는 다이아 새 싱글 '루팅 포 유'(Rooting For You)를 발매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블랙핑크 '휘파람' 뮤비 8억 뷰 돌파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휘파람' 뮤직비디오가 8억 뷰를 돌파했다. '휘파람' 유튜브 뮤직비디오는 조회수가 12일 오후 11시 8분께 8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 2016년 8월 8일 공개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 발표 이후 하루 최대 조회수가 약 85만 회를 달성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이며 8억 뷰 돌파시기를 앞당겼다. 블랙핑크의 8억 뷰 돌파 영상은 '휘파람'을 포함해 '뚜두뚜두'(19억 뷰), '킬 디스 러브'(16억 뷰), '붐바야'(14억 뷰), '마지막처럼'(12억 뷰),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 비디오 (11억뷰)와 안무 영상 (12억뷰), 제니 솔로곡 '솔로' (8억뷰)까지 총 8편이다.

100억 원대 횡령한 박수홍 친형 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1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7일 박씨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박수홍은 이들을 상대로 1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박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